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
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양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554호

서기 2005년 11월 30일
(음력 10월 29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내일 살 걱정하지 말고 하루살이로 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스님: 예,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해 보세요.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자유인이다.' 하면 부처라는 이름인데, 부처라고 구태의연하게 이름을 부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자유스럽게 살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꼭 돼야 세세생생에 자유스럽게 살지, 내가 지금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세생생이 끝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택치는 것은 모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강암이 심해서 아주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법어를 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것도 근근이 육신을 돌려서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니까 자식들한테도 얘기 못 하고 부부끼리도 얘기 못 하는 그 슬픈 마음이야말로 어디다가 털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가 면서도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선 은근히 울고 그냥 축축 쫓고 나가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그렇게 당해 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누구도 모를 겁니다. 아야, 식구도 아무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움죽거리야 자식들과 가정이 살 수 있으니까 움죽거리

나무를 도와서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대중 박수) 그리고 질문할 사람은 질문하세요.

▲질문자2: 3년 전에도, 아이를 낳고 5개월쯤 있다가 안면마비가 와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많이 먹었어요. 그레 가지고 스님께 상의해서 천도재도 여러 번 했는데, 천도재 다 지내고 나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리가 터져야 그 병이 나을 텐데!"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쯤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급하게 다니고 그랬지만, 그 후로 한 2년 간은 아예 다니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물리가 터지면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나오리라 믿고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못해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별야야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울먹이면서) 그런데...

▲스님: 그런데 말이야, 말씀에 내가 먼저 말하는 건 안됐지만 나가서 벌어먹어 살리게 한 놈도 그놈이고, 가난하게 사는 놈도 그놈이고, 믿는 놈도 그놈이고 안 믿는 놈도 그놈이야, 다! 모든 것

텐데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바른 아이를 낳고 바른 엄마가 되기 위해서 더 큰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고 마음먹고, 부끄럽지만 법회 때 스님께 질문을 해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꼭 물리가 터지게 하든지 아니면 나를 깨닫는다는 공부를 꼭 하고 돌아오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회 있을 때 질문하게 해 달라고 관하고 오늘 왔는데, 또 다행히 저만 왔어요. 남편이 같이 왔으면 실어할 텐데요. 이렇게 법당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떠한 책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바른 엄마가 될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 아! 그렇게 잘하면 돼! 하하하... (대중 웃음) 그렇게 진짜로 믿어 봐! 이것은 말로만이나니! 진짜야! 그 맛을 어휴! 그 맛을 알면 너무도 좋을 거야. 그 맛을 알면 하늘을 쳐다보고 백 번을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고 땅을 치고 백 번을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야. 열심히 해 봐,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뭘 그렇게 꼭 잡고 자

떠한 마음을 내어야 하나? 부처님도 내 한마음에 계시며 나와 다르지 않으며, 바로 나의 실상이니 주인공에 감사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부처님께 '원력을 주십시오.' 하는지요. 부처님께 참배를 하면서도 주인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요.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게 간단해요. 만 개의 사람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만 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서 참배를 올릴 때, 내가 그랬죠? 이 법당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법당에서 참배를 올릴 때, '일체제불의 마음'이라는 노래 있죠? 그와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 형상이 내 형상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요, 저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 아니게 '주인공' 하면 전체가 모두 하나로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디를 가서서 참배를 올리든지 주인공하면 그냥 부처와 나, 일체가 다 하나가 돼 버리니까요. 주인공에 감사히 생각하고 하면 그대로 부처님 마음도 거기에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죠.

▲질문자3: 식사를 할 적에는 합장을 하는데 이

해야지! 당신이 구정들이 나오게 했으니까 당신이 새 물이 나오게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그 대치가 있어야죠. 똥을 다 누고 밭을 씻어야만 깨끗하고 깨끗하죠? 그와 같은 겁니다.

▲질문자3: 잘 알겠습니다.

▲스님: 형제 법우님들이 공부가 부진해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죠. 나는요, 사실은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그대로 자는 게 없고, 낮에도 여러분 못지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쉬는 사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깊이 좀 하세요.

▲질문자4: 감사합니다. 강릉지원에서 왔습니다. 빨리 왔다고 왔는데 또 제일 마지막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강릉지원이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큰스님의 큰 원력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온 한양음선원 신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 감사해요.

▲질문자5: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문의 편지로 스님께 올렸습니다. 단, 제 마음자리가 아직 부족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요세 말로 좀 뒤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되면 그걸 전득이 참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보다 몸이 앞서고 몸보다도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좀...

▲스님: 아니요! 이런 묘법이 있어요. 힘을 해도 힘이 없이 하고 또 행을 하되 힘이 없이 행을 한다던 그 비밀이 아무 데도 누설되지 않아요. 사람이

“
제 뿌리는
제 나무를 도와서
푸르게 살게 할 수 있다
”

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날더러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하하... '나는 죽든지 말든지...' 저 자식들을 길러 내야 하나가 죽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하라 이겨야. 허허하... 자기는 죽든지 말든지 자식을 꼭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스님, 내가 '주인공' 할 땐 스님과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부름니다. 나는 그 백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고는 축축 땀고 그냥 나가고, 뭐 오래 앉아 있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딱 오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애들 길러 내지 못하게 생겼어?" 이러니까, "길러 내게 생겼어요!" "그레,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왔는데요. 병원에 가 볼 돈도 없으니까 근근이 조금씩 모아서 한번 어떤가 하고, 그것도 내가 못 믿어서 그렇죠. 가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대요." 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 세상에 또, 나왔으면 가 볼 필요는 뭐 있어 글썽? 그것도 놀란 가슴에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현자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왔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왔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혼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는 사람이 없다면 나도 없고, 내가 없다면 올 사람도 없죠. 그런데 내가 혼자 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 말 자체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수십만의 의식들이 같이 동원해서 작용한 겁니다. 내 몸의 모든 생명들이 같이 해 주고, 그 몸의 생명들이 같이 해 주고, 돌입하게 한마음을 한뜻이 돼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불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박한 마음,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으로 자기는 반드시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제 뿌리는 제



그림 · 최주현

“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확고하게 믿어야
”

내놓는 것만 알지 듣이는 것을 모른다면 아니 되듯, 내놓고 듣이는 것이 모두가 철두철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옴파라는 것은 여기에 타나리를 가도 그냥 요기서 저 문 밖에 통신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두루,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면 그건 누설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확고하게 믿고, 죽든 살든 거기에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 나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지, 다리가 아픈 놈이 와서 빨리 고쳐 달라고 야단법석인데, 끌고 온 놈이 또 빨리 낫게 해 주시라고 '빨리빨리'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낫게 해 주면 이 공부 어떻게 하라고 빨리 낫게 해 줘?' 이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가더니만 아, 다리가 나아서 경중경중 뛰어다니니까 이제 등한시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봐라! 등한시 하잖아?' 라고 하니까 다 지금 다잡아서 공부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지수야. 그러니까 당신도 신날도 안 꼬았어! 만약 100%라면 당신은 20% 30%밖에 안 갔으니까, 그렇지만 한순간에도 100%가 될 수가 있어.

▲질문자2: 그래서요, 한 3개월 전 꿈에 저의 시어머니가 닭을 두 마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내 몸 하나 한마음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애를 가져서 똑바른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낳았으면 엄마가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자식을 바르게 키워주지 못할 바에야 이 애를 안 낳으리라 마음을 먹고...

▲스님: 아이구! 믿지 못하는는 깨달아 그러십니까. 모두가 믿지 못하는 게 그냥 그렇게 많으니까 내가 무슨 수가 있나?

▲질문자2: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알아서 해 줄

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잃어지고 애를 써, 그렇게 응? 아! 그냥 걸어온 뿐이지, 그 발자취를 마음으로 왜 또 뭉쳐 들고 다니?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살림살이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걸을 걸어오듯 또 빨리 낫게 해 주시라고 '빨리빨리'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낫게 해 주면 이 공부 어떻게 하라고 빨리 낫게 해 줘?' 이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가더니만 아, 다리가 나아서 경중경중 뛰어다니니까 이제 등한시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봐라! 등한시 하잖아?' 라고 하니까 다 지금 다잡아서 공부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지수야. 그러니까 당신도 신날도 안 꼬았어! 만약 100%라면 당신은 20% 30%밖에 안 갔으니까, 그렇지만 한순간에도 100%가 될 수가 있어.

▲질문자3: 저는 우리 선원에서 나온 여러 권의 책과 녹음테이프를 통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도를 그렇게도 깊고 지극하게 가르쳐 주시니 큰스님의 법문에 너무나도 뜨거워 감사를 드리며,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어! 때로는 오직 눈물방울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질문자3: 공부하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풀고 다니는 것도 바로 주인공! 당신이 풀고 다니는 것이지. 이 고통 주는 것도 다 당신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믿고 해도...

▲스님: 당신이 하는 것이지 해 놓고 뒷마무리가 없으면 안 되죠.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해결

될 때는 주인공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고.

▲스님: 예, '주인공' 하면 나와 더불어 주인공이지 개별적인 주인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한 그릇 먹을 때에 혼자 먹습니까? 아주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여러 생명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몸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공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밥 한 그릇이 또 뭘니까? 농사지은 사람, 밭 지은 사람, 뉘 뉘, 전부 거기 손길이 갔으니 모두 한데 합치면 전부 공식이예요. 그러나 공식했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양(供養)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양을 올려야,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처님에게 올리는 게 아니고 우주 삼라만상 전체에 한 그릇으로 공양을 올리고도 그런 그릇은 되 남더라 하는 겁니다. 되 남아서 또 올리고, 먹어도 또 남고, 또 먹어도 또 남고 이렇게 되풀이 되는 끊어지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내가 혼자 먹어도 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공양하셨어요?' 이리죠, 절에서, '밥 먹었소?' 이리지고 '공양하셨어요?' 이리죠?

▲질문자3: 공부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풀고 다니는 것도 바로 주인공! 당신이 풀고 다니는 것이지. 이 고통 주는 것도 다 당신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믿고 해도...

▲스님: 당신이 하는 것이지 해 놓고 뒷마무리가 없으면 안 되죠. 당신이 한 거니까 당신이 해결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인의롭고 부드럽게 대해야

29면에서 계속

기 위해서는, 우주와 인간이 어떤 관계가 있는나
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큰스님께서 우주와의 관계를 여러 번 말씀
하신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또 힘이 있다
면 그 에너지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 점을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비유를 해 봅시다. 발전소를 우
주라고 한다면 인간의 능력은 바로 그것을 용도
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까 사람이, 소비자가 없어도 아니 되고, 그 소비
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 능력 자체가 없
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들어 쓰기 위해 에너지라는 이름이 생긴 거지,
용도에 따라서 꺼내 쓸 수 없다면 어떻게 에너지
라는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근
본이 발전소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
서 꺼내 쓰는 그 전력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사람의 능력과, 그 발전소와 돌이 아
니게 같이 직결이 돼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꺼
내 쓸 수 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꺼내 쓰고 크면
큰 대로 꺼내 쓸 수 있다. 그 꺼내 쓸 수 있는 용
량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한계가
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로 가지고
있고요.

▲질문자6: 오늘 하늘 아래 들도 없는 바보가
여기 나와서 큰스님을 뵙습니다. 오늘 질문이 좋
은 가르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4월 전에 열반에 드신 해
인사 큰스님께서 81년 1월 중경 취임의 제 일성
으로 하신 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
체 삼라만상이 모두 다 법신체(法身體)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중생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에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법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스님께서도 인연이 다하시어 이제
열반의 길에 드셨습니다. 그렇게 큰스님께서 인
연이 다해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저
는 불렀듯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
지 큰스님의 깊고 지극하신 자비 밑에서 20년을
선원의 수위로서 지내 왔습니디만, 어른스님의
열반을 보고서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큰스님의 밑을 떠나
서 인연이 다되어 갈 때는 틀림없이 나는 자유행
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에 들도 없는 바보가 20년 만에 용기를 내
서 오늘 처음으로 스님께 큰 가르침 주십사 하고
여쭙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거짓 나를 참나로 알고 현실 속에서 물집에, 허상
에 매달려서 쫓기고 찾고 갈등을 하고 그렇게 살

아합니다. 큰스님께서서는 항상, 저희들이 바깥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으름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게 참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 선지식을 만나는 것
과 그리고 그 계기를 뚜렷이 가지는 것이 공부의
으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계기를 용케도 잡았습니다.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이런 인생의 무상함을 하나의 계
기로 찾았고, 또 오늘 여기 나와서는 스님께서 '이
무지 중생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진리를
한마디로 요리할 해서 딱 깨우쳐 줄 수 있는가, 맛
을 내게 넣어 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두 번
째 계기를 잡았습니다.

소박한 마음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으로 자기는 반드시 자기 뿌리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여기 20여 년을 큰스
님 밑에서 지내 오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큰스
님을 뵈옵고 좋은 가르침을 받곤 했는데 5년 전에
은 아우님이나 6개월 전에 은 아우님이 벌써 주인
공 갖게 보았다 하니 전 그간 걱정이 태산 같고 이
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대중 웃음) 큰스님께서
는 항상 한마음 법으로써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
다. '한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절대 생명이고, 그리
고 공존의 생명이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무한하고, 인간을 초월해서 신
령하다. 너무 크기 때문에 허공과 같고 무(無)다.
항상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 놔라. 여여하게 되돌
려 놓고 그리고 공부해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풀
릴 것이다.' 하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년간 들어 왔습니디만 그것이 항상 큰스님의
말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내 도
반들의 말로 들리지 제 말로는 아니니 마음에 새
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나왔느냐 하면, 이 세 가지 계기

를 잡은 김에 큰스님께서 '너는 인연 없는 자식
아니 이제 수위 자리도 그만두고 나가서 죽든지
떠나든지...' 이 말씀을 오늘 한마디 해 주시면 아
무래도 제가 죽기 싫고 달아나기 싫으면 공부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왔습니다. 좀
크게 꾸짖어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꼭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스님: 본래 말입니다. 본래 인생은 온 게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따나
서까래는 서까래대로 쓸 수 있고, 기둥은 기둥대
로 쓸 수 있고, 포함해서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없
으면 불구이듯이 우리 전체가 이 세상에 나온 것
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한생각을
잘 하셨다면 그대로 해 나가시면 되겠죠. 뭐 길게
생각하고 짧게 생각하고, 또 오래 됐고 오래 되지
않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생각이 중요합니
다. 그런 거니까 그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
니까 한자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하하... (대중
웃음)

▲질문자6: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무라시
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
러분이 다 이익되게끔, 지어서 할 필요도 없고...
(삼배를 올리는 질문자에게 한 번만 하십시오.)

▲질문자7: 큰스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불교
를 믿고 수십 년간 다녔지만 불교의 진수를 모
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 와가지고 용
광로보다 더 확실한, 놓고 갈 수 있는 주인공 자리
를 배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가족이 지
금 손녀까지 여섯 명이나 있는데 저는 마음자리를
놓고 잘 돌아가는데 딸 식구들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에 걸리는 점이 보일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할 때 한 번씩 기술을
한데 얘기를 해 주신다마는 아직 제가 도량이 부
족해서 마음을 가족들한테 못 내는 것 같아서 오
늘 큰스님께, 어떻게 하면은 제 그릇을 좀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여쭙 보고 싶습니다.

▲스님: 식구들이 잘못하든가 났나간다는가 하
더라도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놓으
세요. 즉 말하자면, 그쪽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
같거든요. 그런데 식구들은 벌써 식구라는 가설
이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 가설이 돼 있
죠. 그런데 그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
공에다가 놔도 그 쪽의 주인공까지 다 빼어집니
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한테 '저 사람이 저렇
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모
든 것을 놓고 인의롭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행동
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준다면 거기도 아주 밝아질
겁니다.

▲질문자7: 그리고 제가 스님 앞에서 뭐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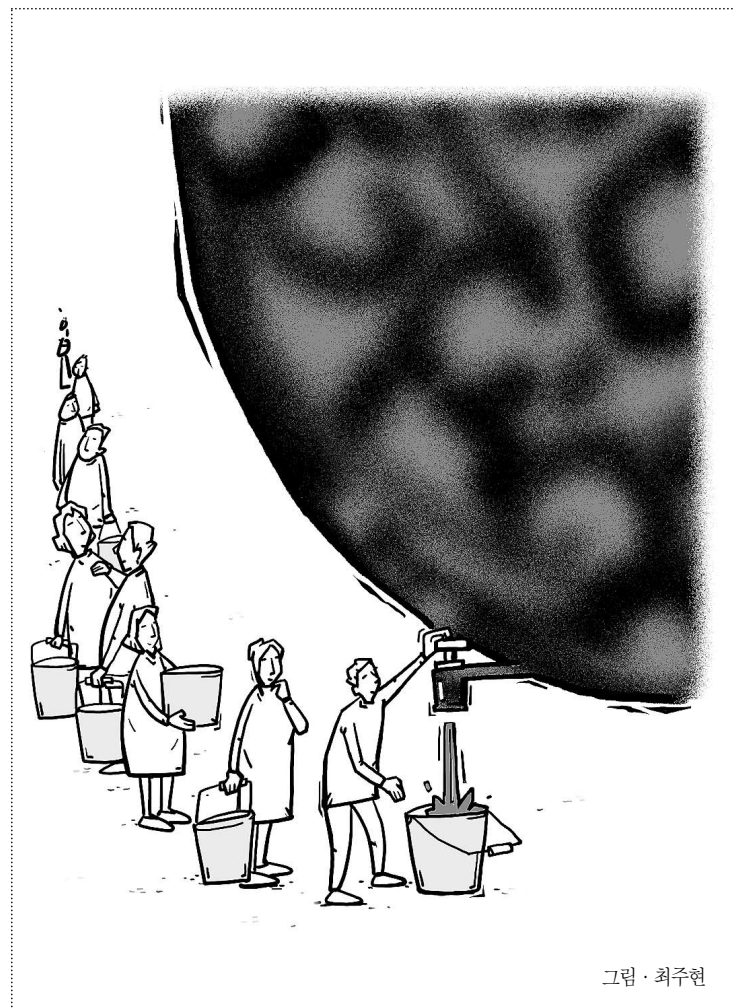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라 할 것도 없지만 일 잡자를 살아오면서 지금까
지 과거는 한생각에 다 놓았습니다. 현재는 스님
앞에 와서 질문까지 하게 됐는데 이 편안함 마
음을 내세우며 가지고 갈 수 있을는지요?

▲스님: 오늘 만약에 남을 도와서 좋은 일을 하
고 내 마음이 즐거웠다면 내일까지도 즐겁죠. 그
런 인연을 맺었다면 더불어 같이 보이지 않는 데
서 모두 빈손으로 돌아 주게 되고, 없는 손이 와
서 돌아 주게 되고, 또 없는 손이 있는 손으로 들
이니까 포함이 돼서 귀인이 돼 가지고 다 돌아
주고, 가는 족족 이렇게 돌아 주게 되죠.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모두 모르셔서 그렇죠. 그러니
까 일제가 다 결과가 통해서 나를 도와주게 되
는 거죠. 내가 혼자 아니니까요. 그리고도 내
마음의 다스림이 이 육체 안의 모든 생명의 의식

들에게 통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
니까 나쁘게 통하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인의롭
고, 자유스럽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실 수 있
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고가, 죽을 보고가 온
다 하더라도 그런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은 이것으로 법회를 마쳐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기공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 경추: 두통, 목통, 신경과민, 안구건조, 두통, 두통, 두통
- 흉추: 심장, 폐, 간장, 위장, 신장, 비장, 위장장애, 소화
- 요추: 허리, 요통, 관절염, 척추관협착, 척추관협착, 척추관협착

수련안내

- 주 간 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5주)
-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5주)
- 장 소: 본 협회(충본관)
- 수련비용: 50만원(숙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쪽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랙틱, 명상 혈문어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랙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제4기 영남 범음·범패 학인 모집

본 연구 보존회에서 영남 범음·범패에 뜻을 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과정: 시율(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쇄송, 각단체별 및 속원 송주 등.
- 중급과정: 신중적법, 대경관목, 각단 형, 상주권공, 각종 시식, 대비식, 점안의식 등.
- 작 법 반: 비리 작법, 승무 작법 등.

모 집 인 원 30명 (선착순)

원 서 접 수 수시접수함.

제 4기 개강일 2005년 11월 28일 (목) 오후 3시
강의일: 매주 월·목(오후 3시)

세 출 서 류 입학원서(본 회 소정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 보존회는 초 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 사찰 청년 및 운영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함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니다.

※ 교육원 위치: 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아파트 상가지하

● 문의전화: (055)745-8419, 011-867-8419

영남 범음·범패 연구 보존회
원장 한 파 강사 원 명 합장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제해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에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원벽조판
- 바라춤과 요장 등, 각종 전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집,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응천도증 증정)

천도재 비디오 3개 (대경, 관속, 시식, 배송) 원벽한 방송용 자막 처리, 활인가 6만원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만삼)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자킴이 신비의 향토침대·향토손·향토불판

향토는 오랜 세월동안 태양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규소성 광물로서 흔히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특출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구멍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향토손·향토불판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하여 엄청난 양생력을 가진 무병장수의 향토로 사용되는 향토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은 우리집 건강 지원제입니다.

향토손의 특월한 효능

1. 정화작용 및 해독제 역할
2. 인체의 순환작용
3. 통증의 완화작용
4. 신진대사 촉진

향토침대에서 숙면을 취하면 향토불판에서 압통 요리의 기능이 되어서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제품 가격: ● 향 토 침 대 (1인용): 1,500,000원 ● 향 토 손 + 향 토 수건: 20,000원
● 향 토 불판 + 향 토 수건: 25,000원 ● 향 토 손 + 향 토 불판 세트: 45,000원

● 입금 계좌번호: ● 농 협: 178990-56-003521 (이정숙)
● 대구은행: 023-07-473126-001 (이정숙)

● 구입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다사읍 서재리 543-1 중앙시장 108호 대구·경북지사장
011-817-9364 · 017-804-0215 · 053-585-9364 이노사나 합장